산업통상자원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1. 17.(목) 11:00 < 11.18.(금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1. 17.(목)	
담당 부서	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	책임자	과 장	안창용 (044-203-5740)
		담당자	사무관	문형태 (044-203-5743)

공급망, 청정경제 등 신통상이슈와 FTA 협상 · 이행 · 개선 · 활용 간 연계 강화 모색

- 산업부, 5차 FTA 전략포럼 개최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11.17(목)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**"신통상이슈와 FTA 연계 강화방안"**을 주제로 **「5차 FTA 전략포럼」을 개최**하였다.

< 5차 FTA 전략포럼 개요 >

◇ **일시 및 장소** : '22.11.17(목) 12:00~14:00, 서울 롯데호텔

◇ **참석자** : **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·이시욱 국제통상학회장**(공동 주재), 강준하(홍익대), 고희채(KOTRA), 김태황(명지대), 남궁준(노동연), 성한경(시립대), 송유철(동덕여대), 장영욱·정철(KIEP), 장용준(경희대), 정인교(인하대) 등

◇ **주제** : **신통상이슈와 FTA 연계 강화방안**

* 1~4차 주제 : (1차)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, (2차) 글로벌 공급망과 신통상 거버넌스, (3차) 일본의 경제안보전략에 대한 이해, (4차) 메가 FTA와 농축수산업

□ **동 포럼**에서는 **공급망, 청정경제 등 새로운 통상이슈**에 맞춘 **FTA 이행, 개선, 활용, 사회적 가치 증진 방안**에 대해 **전문가 발제 및 토론**을 진행하였다.

○ 포럼을 주재한 **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**은 **모두발언**을 통해 "IPEF와 같이 **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**가 나타나는 상황에서, **기존 FTA**에도 공급망, 디지털, 기후변화 등 **새로운 통상이슈를 연계**할 수 있도록 **협상 단계** 뿐만 아니라 추후 **이행·개선·활용 단계**도 **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**가 있다"고 강조하였다.

□ **포럼에 참석한 전문가**들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하에서 **FTA**가 외연을 확대하여 **포괄적인 대외정책 플랫폼으로 진화**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, FTA 협상·이행·활용 등 **전주기적인 과정을 지속 관리**해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.

○ **FTA 이행** 관련, **노동연구원 남궁준 부연구위원**은 한-미 FTA, IPEF 노동 분야에서 **디지털경제 노동자(gig worker 등)와 같은 새로운 쟁점**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바, **우리 법제와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**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하였다.

○ **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영욱 팀장**은 **FTA 개선** 단계는 **새로운 규범 수립 및 협력 강화에 기여**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, 예를 들어 **한-영 FTA 개선**을 통해 **공급망, 디지털, 기후변화, 중소기업, 보건·의료 등 분야**에서 **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확대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.

○ **KOTRA 고희채 팀장**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등 폭넓은 인프라에 기반한 **FTA 활용률 제고** 또한 필수적임을 강조하고, **FTA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**하고 **기업·산업의 특수성에 맞춰 유리한 FTA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**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.

○ 끝으로 **홍익대 강준하 교수**는 **FTA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**이라면서, 기존 우리나라 FTA에서 **중소기업 지원**, **원산지·통관을 통한 공급망 연계**, **개도국 역량배양** 등 분야를 강화하고 **친환경상품 등 관련 신통상규범을 정립**해나감으로써 **통상을 포용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**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.

□ **산업부**는 **통상·FTA 분야에서의 정부혁신·적극행정 강화** 차원에서 정부-학계 공동으로 진행해온 **FTA 전략포럼 시리즈**를 금번 5차 포럼으로 **마무리**하였으며,

○ 추후에도 **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 청취**하며 **FTA 전략을 점검**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